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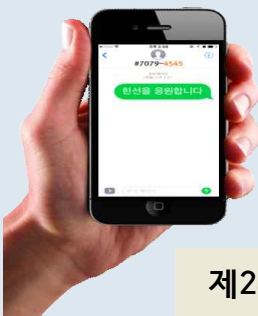
[주 제] 혁신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방송·언론 생태계 모색과 과제

[발제자]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일 시] 2017년 10월 26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문자 후원

#7079-4545

제268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우리나라는 1883년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1927년 최초의 방송 ‘경성방송’이 생겼다. 100여 년밖에 안되었다. 압축성장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언론과 여론 개념도 단기간에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공론’이라는 단어는 율곡 이

이가 처음 사용했다. 최근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을 통해 우리는 ‘공론’이라는 개념을 학습했다. 왕조 시대, 민주화 시대에 이어 속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지금은 스마트폰의 시대이다. 아침에 신문을 보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더 많다. 대부분 저녁 뉴스로 정보를 파악해두고, 밤사이 일어난 사건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파악하는 추세이다. 올드 미디어가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뉴스가 변하고 있다. 1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뉴스의 지평이 열리고 있다. 실시간 정보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저널리즘 시대가 되었다. 청중도 변하고 있다. 소비자에서 집단 지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허핑턴포스트(The Huffington Post) 같이 SNS를 활용한 유저의 참여로 미디어가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지성이 발아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다양해야 한다. 성별, 나이, 직업, 취미, 가치관 사상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둘째, 독립적이어야 한다. 타인에게 휩쓸리지 말고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는 매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셋째, 이성적이어야 한다. 논리적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뉴스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기계가 조화롭게 공조하는 시대이다. 기존의 네트워크가 더 확장되고, 연결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혼합될 것이다. 기계와 사람이 소통하는 시대가 된다. 저널리즘도 바뀔 것이다. 데이터, 센서, 인공지능, 로봇, 드론, 증강현실을 활용한 저널리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환경 분야에서 센서나 드론이 저널리즘에 활용되고, 인공지능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으며, 종군 기자 대신 로봇을 보내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직업 안정성 훼손, 사회적 책무성 약화, 뉴스 소비패턴의 왜곡, 법과 제도의 지체 현상, 사생활의 뉴스화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 여론의 역할과 역사

: 오감을 동원해서 알게 된 사실을 악의 없이 보도해야

- ◆ 최근 240번 버스 사건이 있었다. 여기서 주요하게 볼 점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언론이 취재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진상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가 기자가 취재를 하는 속도보다 빠름을 보여줬다. 현실적으로 기자가 버스에 동승해 당시 상황을 취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기자들이 오감을 동원해서 알게 된 사실을 악의 없이 보도하는 것이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진실이다.
- ◆ 고대 그리스나 로마는 소식을 구전으로 전달했고, 중세에는 음유시인들이 이야기를 전

했다. 15세기에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가 인쇄술을 발명해 소식을 전달했다. 17세기 식민지 시대에 영국 커피하우스에 사람들이 모여 각종 장사를 위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돈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이때 돈이 되는 정보만 따로 모아 적는 사람이 생기면서 여론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저널리즘의 기원



17세기 영국의 커피하우스

- ◆ 우리나라는 1883년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1927년 최초의 방송 ‘경성방송’이 생겼다. 100여 년밖에 안되었다. 압축성장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언론과 여론이라는 개념도 단기간에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공론이라는 단어는 율곡 이이가 처음 사용했다. 최근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을 통해 우리는 공론이라는 개념을 학습했다. 왕조 시대, 민주화 시대에 이어 속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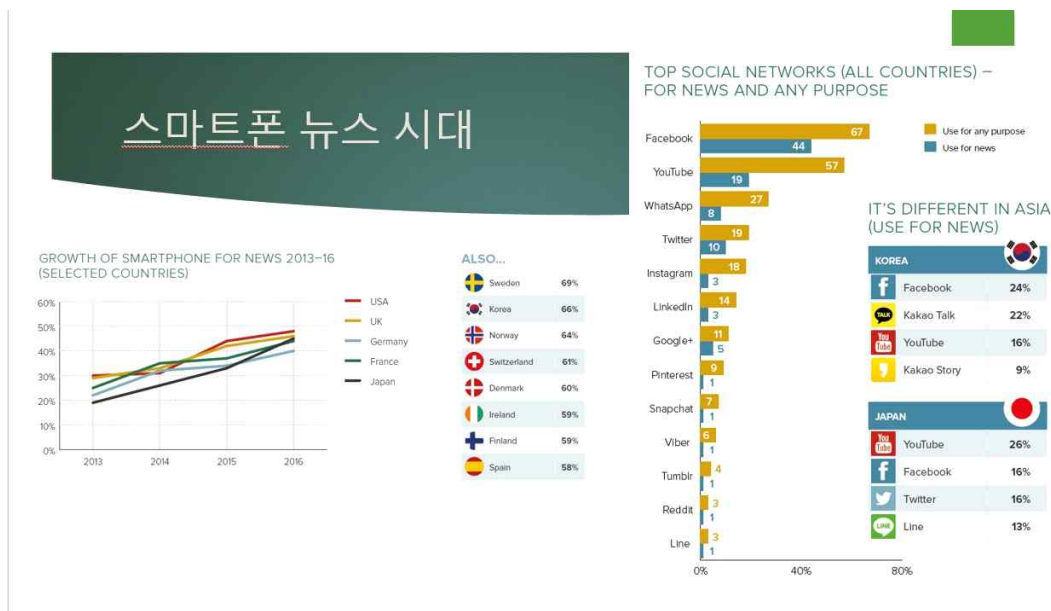
◆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언론 생태계

: 다양하고 독립적이며 이성적인 집단지성이 발아해야

- ◆ 인터넷 시대에 유세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지난 선거 당시의 박원순, 안철수 후보가 대표적이다. 유세는 많은 유권자를 만나야 하는 것인데 뚜벅이 유세로는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후보를 만난 사람들이 인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뚜벅이 유세가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미디어가 정치를 바꿨다. 선거가 체육관 선거 - 광장 선거 - 안방 선거 - 모바일 선거로 진화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였지만

미디어를 통해 구축한 이미지로 미국인을 사로잡았다. 정치적인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도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당의 실력자들이 뒷방에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미디어를 활용한 여론을 이용하고 있다. 결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졌지만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졌다.

- ◆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정보가 옮겨가면서 뉴스를 보는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많이 본다는 로이터 재단의 조사결과까지 나왔다. 2015년보다 2016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리스의 경우 27%의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본다. TV와 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보다 많다.
- ◆ 신문과 방송은 사장, 부장, 기자 및 데스크가 있는 관료적 구조이다. 어려운 시험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고, 정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이다. 그에 비해 SNS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방되어 있다.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고, 여러 미디어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 않다. 0.094%의 소수가 SNS 여론을 주도하고, 동질 집단끼리의 공감 소통으로 인해 의견은 양극화되며, 대화가 잘 되지 않아 세대가 단절된다. 루머도 쉽게 만들어진다. 기자나 법조인, 기업인 등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 발언하지 않는다. 또한 빠른 전파성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 만약 안보에 대한 괴담이나 대통령 선거시기라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 ◆ 지금은 스마트폰의 시대이다. 아침에 신문을 보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더 많다. 대부분 저녁 뉴스로 정보를 파악해두고, 밤사이 일어난 사건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파악하는 추세이다. 올드 미디어가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뉴스가 변

하고 있다. 1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뉴스의 지평이 열리고 있다. 실시간 정보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저널리즘 시대가 되었다. 청중도 변하고 있다. 소비자에서 집단 지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허밍턴포스트(The Huffington Post) 같이 SNS를 활용한 유저의 참여로 미디어가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지성이 발아하려면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다양해야 한다. 성별, 나이, 직업, 취미, 가치관 사상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둘째, 독립적이어야 한다. 타인에게 휩쓸리지 말고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는 매커니즘을 가져야 한다. 셋째, 이성적이어야 한다. 논리적 토론이 전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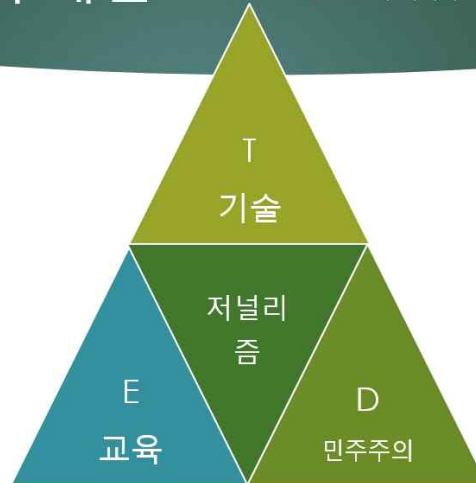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뉴스 생태계

: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해 언론인 교육이 필요하다

-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론을 파악한다. 모은 빅데이터를 어느 수준까지 공유하고, 활용할지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동일한 통계 자료를 놓고도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낼 정도로 아직은 미숙하다. 활용 기준과 공개 범위 등을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뉴스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기계가 조화롭게 공조하는 시대이다. 기존의 네트워크가 더 확장되고, 연결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혼합될 것이다. 기계와 사람이 소통하는 시대가 된다. 저널리즘도 바뀔 것이다. 데이터, 센서, 인공지능, 로봇, 드론, 증강을 활용한 저널리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미 환경 분야에서 센서나 드론이 저널리즘에 활용되고, 인공지능이 기사를 작성하고 있으며, 종군 기자 대신 로봇을 보내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직업 안정성 훼손, 사회적 책무성 약화, 뉴스 소비패턴의 왜곡, 법과 제도의 지체 현상, 사생활의 뉴스화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 ◆ 현재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환경을 보자. 신문과 방송의 저널리즘 전문성이 미흡하고, 뉴스 신뢰도는 하락 추세이다. 체계화된 기자 교육이 없고, 공영방송 운영 구조의 정파성이 논란이다. 콘텐츠의 표준이 없고, 규제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없고, 민주주의 진흥 차원의 저널리즘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장을 쓴다고 기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언론의 전문성 차원에서 언론인을 양성하

신문정책 제언

신문협회 세미나 발표, 2017년 8월



신문정책에 대한 제언(2017년 8월 신문협회 세미나)

고 재교육하는 학교가 필요하다.

- ◆ 우리는 살고 있는 초연결 시대에는 뉴스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책무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수용자를 위한 미디어 교육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큰 틀에서 미디어 정책을 바라보지 않으면, 특정인, 특정정파, 특정 사업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훼손되기 쉽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 질의응답

[질문 1]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초연결 사회이다. 많은 정보가 양산되면서 국민의 여론이나 정보가 왜곡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답변 1] 미디어에서는 왜곡이라 하지 않고, 편집권이라고 포장한다. 최근 네이버 순위 조작 사태가 그 예이다. 결국 그 정보를 가진 사람과 배운 사람이 공적 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저는 공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그런 엘리트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뉴스에는 뉴스 순위가 없고, 우리나라 포탈은 순위가 있다.

[질문 2] 올드 미디어가 가진 문제가 뉴 미디어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 미디어 관련 교육과 편집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답변 2] 민주주의는 자유, 독립, 언론과 같이 간다. 덴마크를 비롯해 유럽은 신문사업 지원을 많이 한다. 이는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론의 왜곡이나 특정 정보가 독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거나, 전문적인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적 뉴스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의 자유를 위한 통제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